

조국강토를 통일환화와격으로 옮겨 한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어느덧 열네해가되어온다.

이날을 맞으며 온 겨레는 자주통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새 장을 환희롭게 펼쳐나가던 경이적인 화폭을 돌이켜보며 북남관계를 또다시 파국으로 몰아넣은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에 대한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돌이켜보면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우리 민족은 선연의 리행을 위한 출중한 노력으로 그 이전 시기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경이적인 사변들을 안아왔다.

장강 반세기이상이나 불신과 대결의 심연속에 깊이 빠져있던 북남관계는 우리 민족끼리념에 기초하여 화해와 협력의 궤도를 따라 끊임없이 발전하였다.

북과 남은 상급회담을 비롯하여 여러 갈래의 당국간 대화와 접촉들을 진행하면서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여 북남관계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공동의 방도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하나하나 실현해나갔다.

특히 2005년 6월 15일과 8월 15일 그리고 2006년 6월 15일 평양과 서울, 광주에서 열린 민족공동의 통일행사에

지난 6일 박근혜가 《현충일》추념사라는데서 《북이 핵개발과 도발위협을 계속하는 한 (한) 반도의 평화는 요원할것》이니 뭐니 하고 공화국의 핵을 또다시 걸고들었다. 여기에 외교부 장관이요, 6자회담 남북수석대표요 하는자들도 결마라 《통일로 가는 난관중 북핵이 가장 큰 문제》라느니, 《북핵문제의 우선적해결》이니 뭐니 하며 국제무대를 돌아다녔고있다.

마치 공화국의 핵이 평화를 위협하고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에 장애물이나 되는듯이 묘사하는 황당한 꾀변에 실소를 금할수 없다.

다 아는것처럼 공화국의 핵은 이 땅에서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평화변영과 통일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다.

공화국이 왜 핵을 가지게되었는가.

미국의 핵위협과 전쟁책동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사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지만 공화국처럼 그렇게 오래동안 엄중한 핵위협을 받아온 나라 는 없다.

미국이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수차례 걸쳐 핵무기사용을 검토한 사실과 《후에 블로》 호사건과 같은 큼직큼

통일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북과 남의 당국대표단이 참가한것은 우리 민족끼리의 열기에 떠받들려 획기적발전의 길에 들어선 북남관계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북남관계를 협력과 통일으로 이끌어나가려는 쌍방의 노력에 의해 반세기이상이나 끊어졌었던 동서해안일대의 철도가 련결되고 도로가 개통되는 꿈같은 현실도 펼쳐졌다.

이와 함께 하늘길, 바다길도 열려 북과 남은 혈육이 사는 곳에 가면서도 멀리 에둘지 않으면 안되었던 가슴아픈 비극도 가시었다.

6.15가 열여섯 길을 따라 남조선의 언론사태표단이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한데 이어 흘러진 가족, 친척상봉도 실현되었다.

금강산관광사업이 날로 확대되어 수많은 남북동포들이 생수의 명산을 보고싶던 평생소원을 풀었으며 개성공업지구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어 북남경제협력은 날이나 확대되었다.

부산에서 진행된 제14차 아시아경제대회에서와 대구에서 진행된 제22차 세계대학생체육경기대회에서 북과 남의 선수들이 통일을 앞

세우고 공동일장하고 통일의 사설로 간 큰 규모의 북측유원단은 온 남녘땅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켰다.

2007년 10월 또 한차례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진행되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됨으로

써 북과 남은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실천하여 북남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불멸의 리정표를 세우게 되었다.

참으로 6.15가 일으킨 북남관계개선과 민족화해, 협력의 열풍은 끝없는 현실을 담아내고 삼천리강산에 통일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메아리치게 하였다.

북남공동선언이 계속 리행되었다면 의심할바없이 북남관계는 훨씬 더 멀리 전진하였을것이며 온 겨레가 꿈꿔에도 바라던 조국통일이 그만큼 앞당겨졌을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극단적인 반통일대결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과 남에 차남치던 민족의 화해와 단합열기는 삼시에 사라지고 북남공동선언들의 리행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게 되었다.

대결의식이 골수에 찬 리명박 《정권》은 6.15공동선언과 그에 의해 밝혀진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약탈하게 헐뜯으며 북남사이에 이룩된 귀중한 열매들을 가차없이 짓밟아버렸다.

반통일적이며 도발적인 《비핵, 개방, 3 000》파위의 대결정책을 추구한 리명박대당에 의해 6.15이후 북남사이에 줄기차게 이어온 대화와 접촉,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은 모조리 단절되고 온 민족에게 기쁨을 주던 금강산관광사업이 전면중단되었으며 민간단체들의 교류와 접촉, 협력사업마저 질식되었다.

침략적인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모해하고 헤치기 위한 역적대당의 반공화국 모략과 전쟁도발책동에 의해 북남관계는 불과 불이 오가는 위험천만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한마디로 리명박 《정권》 5년간의 북남관계는 대화도 협력도 없는 최악의 관제, 전쟁위협과 총돌로 엮여진 위험천만한 관계였다.

박근혜 《정권》역시 북남공동선언과 대치되게 그 무

슨 《신티프로세스》라는 대결정책을 들고나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이른바 《원칙고수》를 운운하며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의 기회마저 다 망쳐놓았다.

서로 비방증상을 하지 않을데 대한 약속까지 깨버리고 심리전과 베라살포에 계속 매달리고 공화국의 병진로선까지 시비증상함으로써 북남관계를 더욱 불신과 대결의 관례로 만들고있는것이 남쪽의 대결 《정권》이다.

최근에는 통일이라는 중대한 민족사적위업을 불순한 기도실현에 악용하기 위한 《드레즈덴선언》이라는것을 들고나와 동족사이의 반목과 질시를 조장하고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있다.

6.15통일시대가 안아온 경이적인 사변들과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의 오늘의 현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리행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가 한걸음도 전진할수 있는것은 물론 온 겨레가 바라는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6.15북남공동선언을 고수리행하면 통일이요, 버리면 분렬의 지식이요.

본사기자 주 광 일

허황한 망상을 버려야 한다

최근 남조선보수당국자들속에서 통일문제를 놓고 이리저리러한 잡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집권하기전부터 《신티프로세스》라는 듣기에도 거북한 낱말을 저들의 《대북정책》이라고 요란하게 광고해온 보수패당은의 올해에 들어와서는 《통일대박론》이라는것을 들고나왔는가 하면 저 멀리 유럽에까지 가서 《대북3대제안》을 골자로 하는 《드레즈덴선언》을 발표하는 등 유난히 분주당을 피우고있다. 《신티에 립각한 남북관계》를 저들의 《주도》하에 만들수 있다고 힘소리를 치면서 가스롭게 놀아내는 보수패당의 망상은 지금 사람들의 쓴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박근혜가 앞장서서 제창한 《신티프로세스》나 《통일대박론》, 《드레즈덴선언》에는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원칙과 통일의 방향, 방도가 없다.

무릇 어떤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 그 문제해결의 명확한 방향과 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막아서는 난관을 뚫고 전진해나가는 진지한 노력과 현실이 안반침되어야 하는 법

그러나 남조선보수당국의 《신티》니, 《통일》이니 하는 타령에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이룩

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에 기초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해결의 열쇠가 없이 그저 막연하게 《남북간에 작은것부터 신뢰를 쌓아야 한다.》거나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리득이 된다.》는 식의 공허한 메아리밖에 없다.

보수패당이 《획기적인 통일제안》이나 되는듯이 자화자찬하는 《드레즈덴선언》을 놓고보자. 이 《선언》의 골자라고 하는 《대북3대제안》의 내용이라야 고작 《인도적문제해결》, 《민생인프라구축》, 《주민간 동질성회복》이다. 지금 북남관계가 악화일로로 걷고있는 근본원인이 북남간에 인도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이거나 《민생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데 있지 않다는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문제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이 문제해결의 본질적방도를 외면하고 이런 지엽적인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마치 저들이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에 관심이나 있는것처럼 놀아대고있는것은 그럴만한 리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머릿속에 오직 제제대결과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라는 허황한 망상이 짝 들어차있기때문이다.

박근혜가 한쪽으로는 《신티》니, 《통일은 대박》이니 하는 그럴듯 한 말을 할 때 그의 수하들개인 전 정 보인 원장 남재준과 외교부장관 윤병세따위들이 저들이 모인 뒤굴방에서뿐아니라 국제회의장까지 어느때쯤에는 조선반도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될것이라는 말갈지도 않은 소리를 늘어놓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남조선에서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문창국을 놓고 여론이 죽가마 쪼듯 하고있다. 그는 2011년 6월 15일 어느 교회에서 한 강연에서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하느님의 뜻》이라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더 나아가 우리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진것도 《하느님의 뜻》에 의한것이였다.는 얼토당토않은 망언을 내뱉었다.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단평분결할 망언중의 망언이 아닐수 없다. 일제의 조선지배는 외세의 침략야욕과 총칼이 빚어냈것였고 약소민족이 당한 비참한 운명였었다. 우리 나라의 분렬도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철두철미 외세가 강요한 비극이였다. 외세의 강점과 민족분렬의 근 70년으로 우리 겨레가 얼마나 많은것을 잃고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있는가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즉 문창국은 교수대에 목을 매달아야 할 민족반역자이고 량심도 쓸개도 없는 인

간쓰레기이다. 가관은 온 남녘인민들이 분노에 차서 문창국의 과거죄행을 파헤치며 총리후보지명을 철회하라고 웨치는데도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라는자가 《그는 친일이 아니라 국일이고 나라를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매국노를 국구 비호두둔해나서 여론의 또다른 못매를 맞고있는것이다.

우리 민족을 멸등민족으로 치부하며 국악한 망언을 일삼은 문창국이 나, 그를 비호두둔하는 《새누리당》이나, 많고많은 사람중에 문창국자와 같은 반역아를 총리후보로 지명한 박근혜나 같고같은 인간쓰레기들이고 매국노의 집단이 아닐수 없다. 우리 나라의 분렬이 《하느님의 뜻》이였다 자랑스레 지경인자를 총리후보로 버젓이 지명한 박근혜가 《통일》을 운운하는것도 위선이고 겨레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

김정 일

설사 어찌든 살아남을수 있어도...

지난 9일 남조선검찰은 2007년 북남수뇌상봉담화록을 불법류출한 혐의로 고발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김무성과 전 정보원장 남재준 등 《정부》와 여당관계자들에 대해 혐의가 없는것으로 처리하였다. 한편으로는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정보원의 불법대골공작활동을 적발해낸 야당의 《국회의원》 4명에게는 벌금형을 내리었다.

이를 두고 지금 남조선의 야당,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층은 《은 나라를 발각 뒤집어놓은 불법대북공작공개사건을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내릴수 있는 검찰의 용기가 갑탄스럽다.》, 《친박파의 자의적재배를 유감없이 보여준 정치검찰의 행태에 개란과 실소를 금할수 없다.》, 《딱 《정권》의 수준만큼 내린 결론》이라고 야유조소하고있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서고있다.

이번에 보수패당이 북남수뇌상봉담화록을 불법류출하여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대중앞에서 공개하는 망나니짓도 서슴지 않은 김무성과 같은 책물야들을 무혐의처리한것은 수뇌상봉과 10.4선언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파국상태에 빠진 북남관

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행위이다.

원래 수뇌상봉담화록은 어느 나라에서나 최대의 극비로 되어있으며 남조선에서도 《대통령기록물》로 되어 엄격히 비밀에 붙여져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매거티들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때 선거형세가 불리해지자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을 내세워 부산시민들앞에서 당하북대내용을 공개하면서 로무런 전 《대통령》이 2007년 북남수뇌회담과정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물고늘어졌다. 그후에도 보수패당은 《정보비대선개입사건》이 터지면서 현 《정권》의 존립기반이 밀부리채 흔들리게 되자 그것을 눌러버리기 위해 수뇌상봉담화록을 전적 공개해버리는 추태도 서슴지 않았다.

북남수뇌상봉담화록을 공개한것은 북남관계력사는 물론 세계외교사디에서도 있어본적이 없고 상상도 할수 없는 망동인것으로 하여 남조선의 야당을 비롯한 각계층과 언론들로부터 《사상초유의 국기문란》, 《쿠데타》, 《내란》, 《초법적행위》 등으로 강력

한 규탄을 받았다.

이번에 남조선보수패당이 검찰을 내세워 1년나타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그 망동의 맨 앞장에서인 저찌매거티들은 《협의없음》이라는 날조로 《구원》하고 정보원의 《대통령선거개입사건》을 폭로한 야당측인사들에게 형벌을 들먹이는것은 누가 보아도 그 나절한 속심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정치만화가 아닐수 없다.

천하무례한짓을 감행하고서도 법적처벌을 받기는 고사하고 량심성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정지창매거티인 남조선보수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개선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이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저들의 추악한 정치적야욕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족의 운명문제, 북남관계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론의한 북남수뇌상봉까지 정쟁의 희생물로 삼은 폐륜의 무리들을 온 겨레는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은 오늘날은 비록 허울뿐인 저들의 《법》을 피해 머리남을수 있었지만 머리않아 시대와 력사의 준엄한 징벌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똑바로 명심해야 한다.

김 연 희

남조선에서 인명피해를 동반한 각종 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나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를 자아내고있다.

알려지지처럼 년초부터 남조선에서는 경상북도 경주에서 체육관붕괴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남조선당국은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니,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이니 뭐니 하며 요란히 떠들어있으며 다시는 그러한 사고가 없을듯이 생색을 피였다.

하지만 사고는 나날이 늘어나고 나중에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형참사까지 벌어졌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도 서울직할시 철차탈선사고, 교양 화재사고, 장성로양병원화재사고 등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는 끝없이 이어지고 그 피해 또한 갈수록 끔찍하게 터져나와 만민을 경악케 하고있다. 오죽하면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자고 일어나면 사고, 또 사고, 깨어나면 술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릴가봐 잠을 자기도 두렵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겠는가.

하더만 목이 터지도록 《안전》을 떠들고 사고발생 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남조선당국의 《열성》에는 아랑곳없이 사고가 연발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하나를 꼽고 보자. 남조선언론들이 폭로한데 의하면 몇달전부터 퍼객선들의 잦은 고장과 상습적인 정

뿌리채 뽑아야 할 악성종양

원초과 등 사고위험이 높아가고 그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당국은 이를 뻔히 알면서도 외면해버렸다고 한다.

침몰사고가 일어난 직후에도 구조가 가능한 천문같은 시간에 말공부나 하고 사고현장에 내려간 장관 《나리》들은 기념사진이나 찍고 돌아갔는가 하면 언론을 통해 참사와 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형참사까지 벌어졌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도 서울직할시 철차탈선사고, 교양 화재사고, 장성로양병원화재사고 등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는 끝없이 이어지고 그 피해 또한 갈수록 끔찍하게 터져나와 만민을 경악케 하고있다. 오죽하면 남조선인민들속에서 《자고 일어나면 사고, 또 사고, 깨어나면 술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릴가봐 잠을 자기도 두렵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겠는가.

하더만 목이 터지도록 《안전》을 떠들고 사고발생 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남조선당국의 《열성》에는 아랑곳없이 사고가 연발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하나를 꼽고 보자. 남조선언론들이 폭로한데 의하면 몇달전부터 퍼객선들의 잦은 고장과 상습적인 정

뿌리채 뽑아야 할 악성종양

이라고 샅대질한 부자집의 아들이 옳다고 했는가 하면 단련고등학교 학생들의 죽음 이 력사 《발전》을 위해 잘 된것이라고 꺼리낌없이 악담질을 해댔다.

이것이 바로 《국민행복》이니, 《희망》이니 하고 요란히 떠들어댄 박근혜 《정부》의 반인민악정에 의해 인간생지옥으로 더욱 화한 남조선사회의 진면모이다.

그리고도 남조선당국자는 《오래동안 쌓여온 폐단》때문에 《세월》호참사가 발생했다고 하며 선임자들에게 술책 책임을 내건가 하면 제가 책임질 대신 권력을 휘둘러 신장과 선원들에게만 《살인자》의 감투를 씌웠다.

뿐만아니라 늑아가는 내외여론의 압력에 못견디게 되자 마치 못해 눈물을 떨구며 사과 아닌 《사과》를 운운하고 수하장수들의 목을 떼어 제물로 바치는것과 함께 《개헌》이요, 《개혁》이요 하는파위의 기만적인 놀음을 벌려놓고있다. 교활하고 칠면피한 책임회피 놀음인 것이다.

하기에 《세월》호 참사가 있

뿌리채 뽑아야 할 악성종양

은지 60여일이 되었지만 아직도 실종자들이 바다물속에 잠겨있고 유가족들과 남조선인민들이 요구하는 사고의 진상규명은 한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아마도 남조선당국자에게 있어서 그 진상은 몹시도 덮여 버리고싶은 위태로운 함정일 것이다.

놓고보면 사고의 근원은 바로 인민들의 운명은 안중에 두 없는 청와대이고 그 주인에게 있다. 력대도 돈과 권력에 의해 유지되는데 《새누리당》이고 그 주위에는 언제나 취파리들이 모여들었으며 그 오물더미에 솟아났것이 현 《정권》이다. 그런데로부터 민생이야 도란에 빠지든 말든

심지어 보수패당은 국방부 대변인이라는자를 내세워 북을 《없어지게 할 나라》로 매도하면서 저들의 제제대결, 북침전쟁야망을 숨기지 않고있다.

박근혜가 저 멀리 도이칠란드에까지 가서 그 무슨 《선언》이라는것을 발표한것에도 일반이 타방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도이칠란드식통일을 조선반도에서 재현해보겠다는 어리석은 타산이 깔려있다는것이 내외의 일치한 평가이다.

제반 사실들은 남조선당국이 번지르르한 말파는 다르게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분렬을,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통일이 아니라 체제대결만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적라라하게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보수패당은 명심하여야 한다. 속에 칼을 품고 제야무리 《통일》을 부르짖어도 거기에 커를 기울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 겨레에게는 불변의 통일원칙인 조국통일3대원칙과 민족공동의 통일대강,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있다. 민족화합과 조국통일은 통일의 원칙과 방향, 방도들이 밝혀져있는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하고 리행해나갈데 이룩될수 있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시대와 민족의 요구에 역행하다가 겨레의 멸시속에 쓰레기통에 처박힌 《비핵, 개방, 3 000》과 같은 반통일대결정책들의 비참한 운명을 이제라도 되새겨보고 《드레즈덴선언》이나 《신티프로세스》로 포장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이라는 허황한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본사기자 김 철 민

같이같은 매국노들

나, 그를 비호두둔하는 《새누리당》이나, 많고많은 사람중에 문창국자와 같은 반역아를 총리후보로 지명한 박근혜나 같고같은 인간쓰레기들이고 매국노의 집단이 아닐수 없다.

우리 나라의 분렬이 《하느님의 뜻》이였다 자랑스레 지경인자를 총리후보로 버젓이 지명한 박근혜가 《통일》을 운운하는것도 위선이고 겨레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

김정 일

민심의 요구에는 한사코 귀를 들어막고 오로지 《정권》유지를 위해 미국장친이나 돈 많은 재벌들의 비위나 맞추면서 사회를 부패타락시켜는 당사자들이 바로 《새누리당》이고 《유신》의 후예인 박근혜인것이다. 그러다보니 제 아무리 사고근절을 위해 뛰는척 해도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리 만무하며 백성들의 목숨을 놓고 도박을 벌리는 격이 되고있는것이다. 만병은 근원을 정확히 찾고 치료할 때만이 고칠수 있다. 《세월》호참사로 숨진 아이들의 운명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독재의 탄압아래 민주주의가 짓밟혀 퍼홀리는 일이 더는 없게 하기 위해서는 악성종양인 박근혜 《정권》, 그자체를 뿌리채 들어내야 한다.

본사기자 서 희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